프로야구 티빙·프로축구 쿠팡플레이…OTT, 중계권 경쟁

안정적 콘텐츠 수급·시청률 보장
스포츠 통해 신규가입자 유치도

OTT 업계가 프로야구 등 스포츠 중계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사진은 지난 13일 열린 KBO 한국시리즈 5차전 KT wiz와 LG 트윈스의 경기 모습. /연합뉴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드라마나 영화만 보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시대가 왔다.

OTT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업계 싸움이 치열해지자 업체들이 '스포츠 중계권'으로 눈을 돌리고 나섰다. 스포츠 콘텐츠가 안정적인 콘텐츠 수급과 시청률이 보장되면서 스포츠 시청자 사로잡기에 나선 것이다.

업계의 스포츠 중계권 싸움은 급증한 콘텐츠 제작 부담을 줄이고, 팬층이 두터운 스포츠 콘텐츠를 통해 가입자를 신규 유입하기 위한 락인(Lock-in)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 업체인 티빙과 쿠팡플레이가 스포츠 중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OTT 후발주자인 쿠팡 플레이는 스포츠 콘텐츠를 앞세워 지난해 8월 처음으로 티빙을 누르고 넷플릭스에 이어 월간활성이용자수(MAU) 2위를 차지했다. 지난 1월에는 토종 OTT 중 처음으로 MAU 800만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티빙의 지난 1월 MAU는 656만명이다.

4일 티빙은 KBO(한국야구위원회)와 2024~2026년 KBO리그 유무선 중계권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비용은 3년간 총 1350억원(연 평균 450억원) 규모로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의 유무선 중계권 금액이다. 티빙은 뉴미디어 분야 KBO리그 전 경기 및 주요 행사의 국내 유무선 생중계, 하이라이트, VOD(주문형비디오) 스트리밍 권리, 재판매 할 수 있는 사업 권리를 2026년까지 보유한다.

쿠팡플레이는 지난해 '축구'를 중심으로 농구, 미국프로풋볼 등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선보였다. 쿠팡플레이는 지난해 OTT 최초로 K리그 전 경기 중계를 시작한 데 이어 아시안컵, K리그, 스페인 라리가, 프랑스 리그앙, 호주프로농구(NBL), 미국프로풋볼(NFL) 등을 중계했다.

올해는 약 350억원으로 하반기부터 4년간의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독점 중계권을 따냈다. 또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2024'에서 국내 사상 처음으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경기를 국내에 선보인다.

쿠팡플레이는 올해도 K리그 전 경기를 중계하며 축구팬인 개그맨 이경규가 게스트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했다.

그밖에 '2024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이하 F1)'의 전 그랑프리를 생중계한다. 오는 9월에 열리는 싱가포르 그랑프리를 2년 연속 현장 생중계로 선보이고, 일본과 중국, 이탈리아 등 다수의 그랑프리도 중계한다.

업계 1위인 넷플릭스는 2025년부터 10년간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WWE)의 인기 프로그램 'RAW'의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계약 규모는 약 6조7000억원으로, 넷플릭스가 맺은 스포츠 중계 콘텐츠 계약 중 최대 규모다.

애플TV 역시 지난해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 리그 사커(MLS)의 독점 스트리밍 권한을 획득, '메시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CJ ENM 통합 디지털 마케팅 기업 '메조미디어'는 "OTT 시장은 포화상태로 가입자 유치는 점점 더 어려워져 2021년에는 이용자가 15%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6%, 2026년에는 3% 미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흥행이 불투명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비해 안정적인 콘텐츠 수급과 시청률이 보장된 스포츠 중계권 독점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한국 창작 뮤지컬 기념우표 발행

우정사업본부, '프랑켄슈타인'·'팬레터' 등 4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리나라의 창작뮤지컬 4편을 선정한 기념우표 57만6000장을 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창작뮤지컬 기념우표는 '프랑켄슈타인', '팬레터', '어쩌면 해피엔딩', '웃는 남자' 총 4종의 포스터를 담았다. 〈사진〉

'프랑켄슈타인'은 한국의 창작뮤지컬 대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으로, 신이 되려고 했던 인간과 인간을 동경했던 피조물 간의 이야기이다. 천재 작가 이상과 김유정 등 당대 최고 문인들의 일화를 그린 '팬레터'는 2015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우수 크리에이터 발굴 지원사업에서 뮤지컬 부문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인간을 돕고자 만들어졌지만, 구형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은 '헬퍼봇'들이 서로 사랑을 느끼는 이야기를 담았다. '웃는 남자'는 신분 차별이 심한 17세기 영국에서 인신매매단에 의해 입이 기이하게 찢긴 주인공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가치를 조명한 작품이다.

한국의 창작뮤지컬 기념우표는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살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과학관, AI 탐구활동 지원사업 동아리 모집

초·중·고 대상…4월 5일까지 접수

국립광주과학관이 미래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탐구활동 지원사업'에 나선다.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이하 과학관)은 오는 4월 5일까지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초·중·고등학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이번 지원사업은 과학문화 확산 및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기획됐다.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동아리는 4월부터 10월까지 다양한 인공지능 탐구활동을 지원 받는다.

과학관은 동아리 탐구활동 물품 구매, 인공지능 전문가 자문 및 온·오프라인 컨설팅, 인공지능 연구기관 투어 및 강연, 과학관 내 탐구활동·토론공간 및 3D프린터 등 장비사용 협조, 과학관 무료입장 등을 지원한다.

과학관은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성과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우수 동아리를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광주시장상, 국립광주과학관장상을 수여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10개 학교 인공지능 동아리 144명이 과학관 지원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탐구활동을 수행했다.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쏠쏠 IT 정보

네이버 AI 서비스 총선까지
선거 관련 콘텐츠 생성 금지

네이버가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오는 4월 10일까지 자사의 인공지능(AI) 서비스에서 선거와 관련한 콘텐츠 생성을 원천 금지한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X'와 생성형 AI 검색 특화 서비스 '큐:'(CUE:)를 선거와 관련한 정보 요청이나 예측 등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 네이버는 다양한 형태의 질문이나 요청 형태로 선거와 관련한 정보가 생성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두 서비스의 대화창 하단에 사용자 주의 안내 문구도 노출한다.

아울러 네이버는 최근 선거와 관련한 딥페이크(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가 활개를 치는 현실을 고려해 이날부터 포털에서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 주의 안내 문구를 띄운다. 검색 이용자가 정보를 소비 하는 과정에서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사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카톡 예약하기 숙박세일 페스타

카카오는 '카카오톡 예약하기' 서비스로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프로젝트 '여행가는달과 함께하는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에 동참한다.

오는 4월 14일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 내 5만원 초과 숙박 상품 구매 시 적용할 수 있는 3만원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쿠폰은 발급일 기준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유효하며, 미사용 시 재발급할 수 있다. 다음 달 4일까지 할인 쿠폰을 발급받은 이용자에게 15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어피치&춘식이의 상상투어' 이모티콘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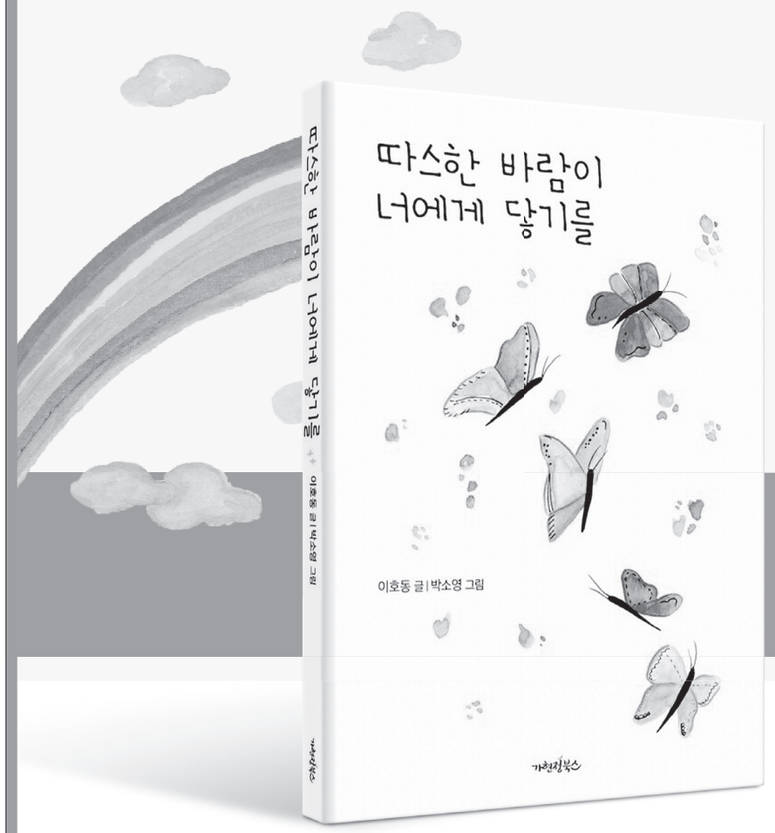
카카오 '응원하기' 창작자 후원

카카오는 다음CIC가 운영하는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스토리가 '응원하기' 모델을 정식 출시하고, 모든 작가에게 확대 적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응원하기'는 창작자의 글에 독자들이 응원 댓글과 함께 후원금을 전할 수 있는 창작자 직접 후원 제도다. 최소 1000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응원한 독자의 댓글은 댓글 영역에 고정돼 노출된다.

브런치스토리는 지난 해 8월 서비스를 대표하는 작가 50여 명에게 '응원하기' 모델을 시범 적용한 뒤 지난 해 10월 적용 대상을 주제별 우수 창작자인 '스토리 크리에이터' 3000명으로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제 브런치스토리를 이용하는 7만여 명의 작가 누구나 응원하기 모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지난달까지 '응원하기' 모델 시범 기간 우수 창작자의 게시글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으며, 댓글과 '좋아요' 수도 각각 45%, 60% 증가했다. /연합뉴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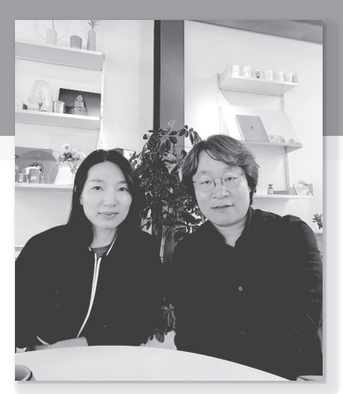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여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